

< 녹 취 문 >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이병환		
면담자	정지선	면담지원자	송미정
면담일시	2025. 8. 21.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1
녹취문 작성자	정지선	회차	1회차

1. 인터뷰 시작 및 개인 신상 (00:00:00~00:03:07)

면담자: 시작하겠습니다.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 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 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 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이병환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장소는 학산문화원입니다. 면담 진행은 미추홀 시민기록단 정지선이 하겠습니다. 면담 지원자로 미추홀 시민기록단 송미정 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구술자: 네.

면담자: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술 기록을 위해 성함과 생년월일 출생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술자: 이병환입니다. 생년월일은 46년 9월 13일입니다.

면담자: 네. 이병환 선생님 맞으시고, 출생지가 어디인지요?

구술자: 옥련동 64번지인데, 우리 부모님은 원래 충청남도 태안이에요.

면담자: 부모님의 고향은 충남 태안이고, 선생님은 옥련동에서 태어나셨고요?

구술자: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저기(수도국산) 고목 나무 있는 데서 태어났어요.

면담자: 네. 그럼 출생지는 옥련동으로 신고가 됐다는 거죠? 태어난 곳은 고목 나무 밑이고.

구술자: 네. 맞습니다.

2. 어린 시절 학익동의 모습, 극동 방송 안테나에 대한 기억, 인하대학교 초기 총장에 대한 기억 (00:03:08~00:06:37)

면담자: 선생님께서 용현 고개로 이사하신 후 용현초등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봤던 동네 풍경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구술자: 그때 당시에는 인하대학교가 있었고, 현) 장미아파트 자리에 한국 강업¹⁾이라고 그거

1) 미추홀구 소성로 72 부근에 있었던 철강회사로 1937년 알루미늄 가공공장이었던 동양전선이 운영하다 1955년 한국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68년 한국 제강이라는 상호명을 거쳐 1973년 삼성 제강으로 민영화되어 운영되다 1982년에 최종 폐업된 부지임. 1984년 12월에 신환종합건설이 580세 규모의 장미아파트를 준공함. 상호명이 여러번 바뀌다보니 지역 주민들이 상호명을 혼돈하여 구술함.

하나 있었어요. 그 이외에는 전부 눈발이었어요. 한국 파이프 자리에도 전부 눈이었어요.

면담자: 현) 풍림아이원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극동방송이 있었고, 방송국 안테나는 바다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안테나에 올라가서 빼 갔다고 하더라고요.

면담자: 극동 방송국 안테나 꼭대기에 있었던 백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그게 엄청 높은데 누가 거기 올라가서 빼 간 거예요.

면담자: 그런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구술자: 우리 회사 직원이 말했죠. 우리(동양화학)가 높은 굴뚝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사람인데, 안테나 확인하러 그 사람이 올라갔어요. 극동방송에서 요청했는데 손 들어가지고 보너스 받고 올라가서 확인하고 내려왔어요.

면담자: 그분이 올라가 보고 백금이 없어졌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구술자: 네. 사실이라고.

면담자: 우와! 그럼 굴뚝에 올라가셨다는 그분은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구술자: 그 사람도 공무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출생지는 강원도예요. 우리 회사로 입사해서 그런 것을 잘했어요. 조그만데 바다에도 들어가고. 독종이야 독종. 그런데 죽었어요.

면담자: 아! 네. 그럼 좀 전에 인하대도 말씀하셨는데, 당시 인하대의 모습은 어땠나요?

구술자: 그때는 본관 사무실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공학 박사가 딱 둘 있었는데, 그 공학 박사 중 한 분이 박철재²⁾ 학장이라고 있어요.

면담자: 박철재 학장님이요?

구술자: '박철재'라고 찾아보면 나와요.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온 분이 계시는데 일본에서도 알아줬던 그분이 인하대 학장으로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 재단으로 돼 있을 때인데, 저도 그 학장님을 아주 잘 쫓아다녔어요.

면담자: 어떤 연이 있어서 잘 따라다니신 거예요?

구술자: 우리가 ROTC 있을 때까지도 그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진으로 넘어가면서 종합대학으로 되고, 그때 성좌경³⁾ 총장이 오신 거예요. 박철재 학장은 물러나시고요.

3. 용현초등학교로 가게 된 이유, 어린 시절에 봤던 용현동과 송의동 일대의 모습 (00:06:38~00:10:04)

면담자: 구술자님께서 다녔던 용현초등학교가 현재 용현초등학교와 같은 학교인가요?

구술자: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우리가 그리로 간 게 5학년 때 분교로 간 거예요.

2) 문교부 기술교육국장, 원자력연구소 초대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과 연구소 설립에 힘쓴 과학자

3) 과학기술처 장관, 고분자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과학 기술진흥에 힘쓴 과학자 · 관료

면담자: 그럼 그전에는 어느 학교에 다닌 거예요?

구술자: 그전에는 학익이요.

면담자: 아! 학익초등학교 다니시다가요?

구술자: 학익초에 다니다가 용현초로 옮겼죠. 그때는 이사 가면 그쪽 학교로 가야 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랬어요.

면담자: 네.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면, 용현동에 사람들이 점차 많이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도 생겼다고 보면 될까요?

구술자: 용현동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면담자: 근데 학교가 생겼으니까 그곳으로 가신 거잖아요?

구술자: 그렇지요. 학교는 학익밖에 없었지요. 옛날에는 문학이었다가 문학에서 학익으로 분교 되고, 학익에서 송도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분교 되고, 그 중간에 한 번 용일초등학교로도 분교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현에서도 용일 가고, 학익에서도 용일 가고, 문학에서도 그리 가고 했죠. 지금 여기(학산문화원) 앞이 용일초 맞죠?

면담자: 네.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용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구술자: 제가 바로 그 앞에서도 살았어요.

면담자: 아! 네. 혹시 용현초등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었지만, 70년대 이후에 버스터미널도 있었던 걸로 보면, 용현동이 조금 변화가 되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학교 다닐 때는 환경이 어땠나요?

구술자: 용현초등학교 생길 때만 해도 거기엔 집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염전이었어요.

면담자: 아! 그곳이요?

구술자: 용현초등학교 거기가 염전 폰드(pond)였어요. 염전에 쓰는 바닷물을 잠갔다 그 물로 염전 돌리고 그랬고, 거기에 낙섬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코너가 돼서 그 자리에 3층인가 4층으로 된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전에는 그곳으로 망둥이 낚시를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는 독갑다리⁴⁾라고 그래가지고, 송의동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그 칙칙푹푹 협궤열차⁵⁾ 있잖아요? 그 열차 지나가는 뚝 밑에까지 바다였으니까요.

면담자: 네. 저도 협궤열차 다니는 철길 밑이 바다였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그 옛날 버스 터미널 자리 전부 다 바다였어요.

면담자: 거기도 다 바다였군요. 저는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이미 건물이 들어와 있는 모습밖에 못 봤으니 과거가 어땠을지 생각도 안 하고 지나다녔는데,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상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술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사업(기록사업), 이거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에 있던 개천의 다리에서 유래된 이름

5) 협궤열차는 선로 간격이 표준(1.435m)의 절반(76.2cm)으로, '협궤(狹軌)철도' 또는 '꼬마열차'로 불리는 열차로 일제강점기부터 1995년까지 운행된 수인선이 대표적인

면담자: 아! 감사합니다.

구술자: 앞으로 후배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이런 발전상을 보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잘 배워나가야 해요. 아주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면담자: 네. 소중한 기억을 남겨주셔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농구 선수로 활동했던 중, 고등학교 시절, 한양대학교 기계과에 진학한 계기와 당시 에피소드 (00:10:05~00:18:54)

면담자: 중·고등학교는 인천에서 다니시다가 대학은 서울로 가셨잖아요? 선생님께서 한양공대 기계과를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중,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구술자: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서 공고도 다녔어요.

면담자: 왜 그러셨어요?

구술자: 그때 당시에 제가 운동을 했어요.

면담자: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구술자: 농구를 했는데, 제고에서도 했고 또 남고, 송도고에서도 했어요. 그때는 학교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운동하면 학비가 면제되었거든요.

면담자: 아! 저도 어릴 때 육성회비⁶⁾ 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구술자: 우리 운동선수는 돈을 안 냈어요. 그 대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랬어요.

면담자: 중·고등학교 때 많이 옮겨 다니셨다면, 친구 사귀기는 쉽지는 않으셨겠네요?

구술자: 왜요? 친구들이 많죠.

면담자: 그럼 대부분 운동했던 친구들인 거예요?

구술자: 네. 근데 많이 죽었어요. 지금 기억으로 남는 건 제43회 전국 체전(대구)에 참석했던 거예요.

면담자: 농구 선수로 출전하셨어요?

구술자: 그럼요.

면담자: 체격이 좋으셔서 다른 운동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때는 너무 힘들었을 때라 운동도 아주 비참하게 했어요. 지금 같이 설비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운동했죠. 등록금 안 내도 되니까 운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고.

면담자: 그럼 어떻게 공대를 가게 되신 거예요?

구술자: 고등학교 다닐 때 동인천 역전에 딱 하나 있는 학원에서 1년간 재수를 했어요.

면담자: 재수학원이에요?

6)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자진 협찬 형식(사실상 강제적)으로 마련하는 회비로 육성회에 내는 비용으로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합쳐서 월사금이라고도 불렀음

구술자: 예. 재수학원 1년 다니고 한양대학으로 갔죠. 그때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공대가 다 별로 그랬어요. 인하대는 더군다나 그랬고요. 그때는 한양대가 최고라고 그래서 한양대를 가게 된 건데,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벌어서 등록금을 댔죠.

면담자: 그때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등록금을 벌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술자: 옛날에 대한통운 같은 보세기창고에 가서 사무실을 지켜주고 청소도 하는 일을 했어요. 요즘은 학생이 나가서 일하면 '알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을 안 썼어요. 일하다가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와서 야간 근무도 하고 또 학교 가고 그랬죠.

면담자: 그때 번 돈으로 학비를 대고 생활비로도 사용하신 거예요?

구술자: 학비는 그렇게 벌어서 마련했고, 일부는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주셨어요.

면담자: 예전엔 형제들이 서로 도와주는 경우도 많던데 어떠셨어요?

구술자: 그때 당시에 형님들 직장이 별로 들이였어요. 우리 큰형님은 수원에 있던 서울농대를 나오셨어요.

면담자: 성균관대 있는데요?

구술자: 네. 그러다가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께서 광업 소장을 하셨는데, 형님이 탄광에 가서 관리직으로 근무를 도와주곤 했지요.

면담자: 힘들게 학교 다니셨네요. 선생님께서 기계과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으셨나요?

구술자: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 일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공업 국가로 된 것도 박 대통령 덕분이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그분 덕이에요. 저는 그분을 엄청나게 존경했으니까요. 그것⁸⁾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박 대통령께서 공업 국가로 가는 데는 큰 역할을 하셨어요.

면담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업 국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아셨던 거예요?

구술자: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알았죠. 박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⁹⁾'을 발표했을 때, '아! 이 길이다. 나는 대학을 공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면담자: 혼자서 생각하신 거예요?

구술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 어렵게 살았을 때니까요. 고등학교도 운동하면 돈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면서 다녔을 시절이니까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밤의 음악 편지¹⁰⁾'라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그게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해요. 그럼 그거 끝날 때까지 공부했어요. 아까 숙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숙직하면서 책도 보고, 라디오도 들으면서 제안

7) 관세를 물거나 하는 따위의 수입 절차가 끝나지 않은 화물을 넣어 두는 창고

8) 유신체제와 장기집권

9) 박정희 정부 주도로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실행된 경제 발전 계획

10) 1962년에 시작된 MBC라디오 심야 음악 방송

도 하고 그랬죠.

면담자: 사연도 보내셨다는 얘기신 거죠?

구술자: 예.

면담자: 라디오에서 선생님이 보낸 사연이 읽힌 적이 있으셨어요?

구술자: 거기서 ‘누구의 이런 게 왔는데’라고 그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약간 쑥스러운 듯이 웃으시며].

면담자: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구술자: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게 있어야지요?

면담자: 아! 네. 저희는 알 수 없는 시절이네요.

구술자: 그럼요. 제가 막내라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으면 ‘막내야! 이리 와서 먹어라!’ 하셨어요. 그때는 할아버지 상을 잘 차려드렸으니까, 반 자시다(드시다가) 저보고 먹으라고 하신 거죠.

면담자: 할아버지 밥을 먹어서 키가 크셨나 보네요. 제가 보기엔 다른 어르신보다 키가 큰 편이세요!

구술자: 우리 집안이 키는 커요.

면담자: 다 크세요?

구술자: 네. 지금도 할아버지 산소가 태안에 있어요. 형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남자는 저만 남아서 제가 다녀요. 산이 한 1만 평쯤 되는데, 종긴 해도 산이라 관리가 힘들어요.

면담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구술자: 그렇게 살았어요.

5.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추억의 음식을 찾아서 (00:18:55~00:19:36)

면담자: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 주셨던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무엇이였을까요?

구술자: 많죠.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손맛이 나는 음식점을 찾아다녀요.

면담자: 어디가 그래요?

구술자: [살짝 웃으시며] 그런 데가 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런 것에 그 손맛이 있어요.

면담자: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비슷하게 구현해내는 집을 찾아다니신다는 이야기죠?

구술자: 네. 김치찌개 하는 집도 ‘저 집은 내 입맛에 아니야! 이 집이 맛있지!’ 하는 그런 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면담자: 아! 그런 집을 일부러 찾아다니시는군요!

6. 동양화학에 입사하게 된 계기, 경제개발을 중요시했던 당시 사회 분위기와

기억나는 에피소드 (00:19:37~00:36:41)

면담자: 동양화학에 몇 년도에 입사하셨는지요?

구술자: 그게 1975년인 것 같은데요?

면담자: 75년이요?

구술자: 네. 75년.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갔어요. 후반기 교육이라 우리 기계 출신들은 전부 '병기' 과를 받았죠. 그때 '수송, 병기' 그렇게 불렸어요. 후반기 교육장에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옛날에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때 1등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정할 수 있었어요. '나 어디로 가겠어!' 하면 거기로 보내줘요. 그래서 '6군 관구 사령부¹¹⁾'라고 영등포 있는 데로 신청해서 학군단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때 '한양대로 갈까? 인천 집 옆에 있는 인하대로 갈까?' 하다가 인하대로 썼어요. 인하대엔 2부 대학이 있어서 군대 생활하면서 다니려고 했던 거죠.

면담자: 저녁에 하는 야간대학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네. 군대 생활하면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학군단은 원래 거기(학군단 숙소)에서 자게 돼 있어요. 침대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집에서 출퇴근했어요. 그러니까 사복 입고 들어왔다가 사복 입고 퇴근하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 저녁에 나가서 사회 경험을 많이 했지요.

면담자: 어떤 경험을 많이 하셨을까요?

구술자: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했다고요.

면담자: 그렇죠. 원래 군대는 갇혀 살아야 하는데요.

구술자: 친구들이 저보고 '저기 전방 이런 데 안 가고, 어떻게 여기로 왔지? 여기 와서도 대학에서 ROTC 하면서 출퇴근을 하지?'라고 신기해하면서 저를 엄청 많이 찾아왔어요.

면담자: 어떤 친구요? 한양대 친구들?

구술자: 아니! 중·고등학교 친구들이요. 제 친구들 중에는 대학을 안 간 친구들도 있고,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를 찾아오면 같이 식사하고 그랬지요. 제가 군인이니까 친구들이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면담자: 네. 그렇죠. 군인은 돈이 없으니까요.

구술자: 그때는 막걸리라고 그러냐? 노란 주전자가 있어요.

면담자: 동동주 같은 건가요?

구술자: 아니! 막걸리예요.

면담자: 양은 주전자 같은 건가요?

구술자: 노란 주전자 한 통에 그때 당시에 아마 15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11) 대한민국 육군의 수도권 서부 및 남부 방위 군관구 사령부로 1954년 1월 15일 창설되었으며 6관구라 불렸다. 사령부는 현 영등포구 문래공원 자리에 주둔했다.

100원대인가 간 것 같은데.

면담자: 어디서 마셨어요? 인하대 후문에서요?

구술자: 전 인하대에서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용현동 아니면 저기 신포동에 많이 갔죠. 신포동 가면은 큰 우물이라고 용동이 있어요.

면담자: 네. 큰 우물 거리가 지금도 있는데 그 용동 큰 우물 거리가 옛날에 변화가였다고 들었어요.

구술자: 그래. 거기가 주로 그렇지요. 거기서부터 배다리로 이렇게 해서 경동에서 주로 모였어요.

면담자: 그 기억이 많이 나나 보네요?

구술자: 그럼요. 치매에 걸려도 어렸을 때 기억은 전부 난다는 거 아니에요?

면담자: 네. 힘들었긴 해도 좋았을 시절이라서 옛날 기억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그렇지. 그때는 모든 거 다 잊고 친구 만나서 다니는 게 제일 즐거웠죠.

면담자: 그중에 지금까지 만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구술자: 그렇죠. 어렵게 일하던 친구들은 죽은 사람도 많지만요. 그때 당시에 건강보험 그런 건 없었잖아요? 저는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했어요.

면담자: 동양화학이요? 그런 복지제도가 있었네요?

구술자: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버스가 와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바로 해 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병원도 한 번 안 가보고 검진도 안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안타까운 거지요.

면담자: 아이고. 그리우시겠네요.

구술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뭐.

면담자: 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동양화학을 대기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당시 동양화학이 주변 사람들이나 공대 출신 사람들에게 큰 기업이라고 느껴졌나 봐요?

구술자: 그때 기억으로 인천에서 공고를 나오면 한국 기계로 갔어요. 거기랑 우리 OCI 동양화학이 급여가 제일 좋았죠. 시험 치고 면접도 보고 들어가야 하니까 취직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당시에 우리 학군단장이 동양화학 비상기획실장이었어요. 원래는 비상기획실장은 본사에서 근무하게 돼 있는데, 동양화학은 비상기획실장을 인천공장으로 발령을 했어요. 우리 학군단장님이 육사 8기인데 부공장장까지 겸직했어요.

면담자: 육사 8기 나오셨다는 그분이요?

구술자: 네. 그분이 저에게 회사로 오라고 그래서 운 좋게 시험도 안 치고, 그분 덕에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면담자: 학군 단장님이 선생님을 잘 보셨나 보네요? 조교를 잘하고 성실하게 하셨나 봐요?

구술자: 비서 같이 살았어요. 제가 그 집을 매일 매일 갔다 오고 그랬어요.

면담자: 학군 단장님 집을요?

구술자: 학군단장 집이 지금 어디냐 하면 동부서 있지요? 동부경찰서. 배다리에서 위로 올라 가면 송림로터리로 가는 우측 길 있잖아요?

면담자: 네.

구술자: 가다가 보면 동부서가 거기에 있어요. 그 자리 바로 앞이 단장님 집이었어요. 옛날 기와집인데 멋진 집이었어요. 사모님도 아주 인자하셨고요. 우리 집처럼 들어 다녔어요.

면담자: 그런 관계가 있으셨군요. 그분이 여기 부공장장으로 계셨던 거잖아요?

구술자: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각 대기업에 전부 다 비상기획실을 뒀어요. 육사 8기들이 비상기획실로 발령을 받았는데, 인하대 학군 단장님은 OCI 비상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거지요. 지금도 보면 금융감독원도 비상기획실이 있어요. 다 있어요.

면담자: 그럼 당시 학군 단장님이 OCI 회사로 오라고 할 때 기분이 매우 좋으셨겠어요?

구술자: 동창들이나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걸 어떻게 또 금방 들어갔냐?’ 그러기도 하고.

면담자: 그러니까요. 혹시 첫 월급 기억나세요?

구술자: 그때 첫 월급이 아마 15~17만 원인가 받은 것 같은데요?

면담자: 와! 막걸리 한 주전자에 100원 할 때, 15~17만 원이면 꽤 큰 돈인 것 같은데요?

구술자: 그럼요. 쌀 한 가마니에 한 3천 원 정도 했으니까요.

면담자: 그때 당시에요? [궁금하다는 듯이 웃으며] 그럼 남는 돈은 주로 어디다 쓰셨을까요?

구술자: 근데 그거 뭐 많은 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 월급이.

면담자: 아~ 순식간에 없어졌나요?

구술자: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면담자: 군대 다닐 때 친구들이 많이 사줬으니, 동양화학 입사 후엔 친구들에게 많이 사주셔야 했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러니까요. 받은 그렇게 나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저금하고.

면담자: 결혼도 생각하셔야 하니까요. 그럼 당시에 급여 수준 만족도가 높으셨던 편이었을까요?

구술자: 그렇다고 봐야지요. 급여도 어느 정도 되었지만, 그 기술이라는 게 거진(거의) 다가 국내산 기계는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럽 기계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거진 다가 일본 거예요. 미국에서는 군 장비나 있지, 산업 장비는 별로 안 들어왔고. 일본이 가차우니까(가까우니까). 옛날 사람들은 일본 말을 거진 다 했잖아요?

면담자: 많이 했죠. 일본어로 교육받은 분들이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구술자: 그렇죠. 제가 80살 해방둥이예요!

면담자: 네. 45년에 해방됐으니까 해방둥이시네요!

구술자: 금년에 8·15 80주년이라고 행사했잖아요?

면담자: 네. 해방둥이란 말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구술자: 옛날엔 해방둥이라고 그랬어요.

면담자: 네. 들어봤습니다. 그럼 75년에 입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구술자: 그때는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TV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공업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광산에 많이 갔어요. 서울대학을 나온 우리 큰형도 거기 갔어요.

면담자: 그랬군요.

구술자: 그때 루프케¹²⁾ 서독 대통령이 눈물 닦으라고 박 대통령한테 손수건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하도 우니까 눈물 닦으라고요. 우리 형님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사진 기술이 뭐 있었겠어요? 독일은 발전된 나라니까 그런 사진을 찍어서 편지에 넣어 보내준 거예요. 한국에서 독일로 간 사람들은 우편으로 직접 보내진 못하고,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주고 그랬어요.

면담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드니까 많이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으시네요. 그 당시 독일에 가신 분들이 파독 광부이신 거죠?

구술자: 네. 광부도 그렇고 간호사도, 대학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갔잖아요?

면담자: 그렇죠.

구술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배우면 뭐 해요? 돈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을 벗어나게 만든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면담자: 네. 동의합니다.

구술자: 그러니까 그 인재 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재를 잘 선택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박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 중등으로 사람들을 파견하려고 장관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해 와라!’라고 했어요. 그때 장관들이 못한다고 살래살래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정주영 씨는 거기 다녀오고 나서 박 대통령한테 ‘내가 가겠다!’라고 하니 박 대통령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정신이 들었나 싶었겠죠? 그때 정주영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정주영¹³⁾ 씨는 박 대통령을 정말 잘 따랐던 거예요.

면담자: 근데 왜 밤에 일한다고 한 거죠?

12) 하인리히 루프케, 서독의 제2대 대통령.

13) 대그룹의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세대 기업인 중 한 분

구술자: 원래는 사람이 낮에 일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긴 낮에 너무 더우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엄청 더운 나라니까요.

면담자: 와! 되게 현명하셨네요.

구술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가기 시작하면서 중동을 다 간 거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데를요. 그때 거기서 돈 벌어서 그걸로 우리나라 산업을 다 일으킨 거죠. 독일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월남 파병도 마찬가지로요. 사실 그분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이 먹고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장본인이예요. 그런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그걸 알아요? [안타까운듯한 목소리로] 모른다니까요.

면담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지 알지요.

구술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기록 작업은 참 잘하는 거라고요. 과거를 모르면 현실도 필요가 없어요. 진취적이지 못하죠.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면, 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자꾸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담자: 네. 저희도 선생님께서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에게 잘한다 해 주셔서 힘도 많이 납니다.

구술자: 이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7. 동양화학 공무과의 역할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 당시 설비되어 있던 기계에 대한 설명 (00:36:42~00:42:08)

면담자: 동양화학 입사 당시 바로 공무과로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공무과가 무엇을 하는 부서이고 구술자님이 수행했던 과업이 무엇이었는데 말씀해주세요.

구술자: 원래는 공무 분야에 공무부가 있고, 그중에 공무과가 있는데요. 공무과는 기계 설치 및 설계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면담자: 아! 설치 및 설계요.

구술자: 그다음에 정비과라고 있어요. 정비과는 기계가 고장 나면 고치고 개선해 주고, 사전 체크를 하는 과예요. PM(사전 점검)이라고 있어요. 사전 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계전과가 있는데, 계전과는 전기 계측기 보수 같은 걸 해요. 이병규 씨가 계측기 담당이었는데, 아주대학교 공대를 나와서 아주 잘했어요. 사람이 똑똑했죠. 그다음에 시설과는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고요.

면담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공무부에 총 4개 과가 있었던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공무부에 4개 과가 있었어요. 거기에 동력과도 일부 나중에 맡았는데, 동력과도 기술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학 회사라는 게 원래 엄청나게 힘든 거

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화학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소다회라는 건 약국 약으로 따졌을 때 약방의 감초라고 해야 하나?

면담자: 네.

구술자: 이게 없으면 공업이 전부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소다회는 전부 일본에서 수입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일본 후쿠오카 소다회 공장 기억하시죠? 그 공장을 제가 몇 번 갔어요. 그쪽 기술을 우리 기술에 접목하려면 가서 봐야 하잖아요? 거기 가서 열심히 봤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요. 직접 와서 가르쳐주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들 한 번 부르면 돈이 얼마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눈썰미 있게 잘 보고 그려서 왔죠.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압수하고 그랬던 시절이어서요. 그걸 그려서 가져왔는데, 국내에서는 봐도 잘 모르니까 외부 기술자를 불러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보죠.’라고 확인받고 우리 공장에 적용해서 트러블 나는 부분을 개선한 거예요. 그리고 소다회가 염화칼슘, 중조 같은 부산물이 나와요. 중조는 식소다죠.

면담자: 가성 소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염화칼슘도 나오고요. 지금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전부 수입해 오던 걸 박정희 대통령이 수입을 중단시켰어요.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해서 동양화학에서 생산하라고 했고, 우리가 생산하는 건 절대 수입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게 전부 국내에서 소비된 거죠. 그 독과점 품목으로 수입을 금지하다 보니까 회사가 속도감 있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면담자: 초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량이 많아서 소다회가 잘 안 팔리다가 말씀하신 대로 독과점으로 해 주니까 잘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그게 없으면 공장의 모든 게 안 되니까, 소다회를 조금씩이라도 비축해 놓는 부분이 있었죠. 기계가 돌아가다가 잘못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비축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기계가 한둘이 아니고, 고장도 자주 났으니까요.

8. 소다회를 생산하는 과정(5개 플랜트¹⁴)에 대한 설명과 각 플랜트의 위치 설명 (00:42:09~00:57:12)

면담자: 네. [동양화학 공장 배치도를 보면서] 여기 보면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구술자: 어마어마하지요. 여기가 올라갔던 굴뚝이네요.

면담자: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직원이요?

구술자: 예. [손으로 꼭대기를 가리키며] 여기까지 올라가요.

면담자: 올라가서 뭐 해요?

14) 특정한 생산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구축된 독립적인 설비 단위

구술자: 올라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벙커C유를 떼면 굴뚝에 스케일이 끼는 거예요. 그걸 그을음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막 더덕더덕 달리는(붙는) 거예요. 그걸 청소해야 하나까요.

면담자: 사람이 청소해요?

구술자: 그렇지요.

면담자: 뭐로 청소해요? 막대기로 하나요?

구술자: 막대기가 아니라 이렇게 스크레이퍼(scraper)라고 해서 긁는 거 있어요. 그걸 줄에 매달아 가지고 떼어내는 거지요.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면담자: 맞아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깊은 데를 어떻게 청소를 했을까요?

구술자: 위에 여기 이렇게 랜딩이라고 발판이 있어요. 거기에 서서 청소를 하는 거죠.

면담자: 아! 주로 윗부분에 스케일이 많이 켜나 보네요.

구술자: 여기 옆에 올라가는 라다(계단)이 있고, 여기도 랜딩이 있고. 이렇게 길이 돼 있죠.

면담자: 애(굴뚝 중 하나)는 그렇게 올라가는데 애네들(다른 굴뚝)은 다 없네요?

구술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다 있어요.

면담자: 아! 안 보이는 거구나. 여기로 올라가셨구나. 여기가 무슨 공장이었어요?

구술자: 여기가 FBC(Fluidized Bed Combustion) 보일러¹⁵⁾인데.

면담자: FBC 보일러. 그다음 공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술자: 그러니까 소금, 나트륨 있잖아요? 그게 솔트 플랜트(Salt Plant)라고 해서, 소금을 용해시키는 곳이에요. 소금은 전부 수입이었는데, 천일염이 아니라 땅에서 파내는 소금이에요. 지금도 땅에서 파내는 나라 많잖아요? 바다에서도 파내고요. 그다음에 라임 플랜트(Lime Plant)라고 있죠? 그건 석회석을 불로 가열해서 분말로 만든 다음, 물에 희석해서 밀크를 만듭니다. 그걸 타워 플랜트(Tower Plant)로 이송시키는 거예요. 타워 플랜트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시켜서 제품을 만들죠. 그 타워 플랜트에서는 해수를 써요.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을 급랭시키는 용도로요. 그리고 칼사이나 플랜트(Calciner Plant)라고 있잖아요? 거기 박병만 씨가 근무했어요. 거기서는 3kg 스팀으로 건조를 시켜요. [동양화학 공장 전경 사진을 보며] 드럼이 여기서는 안 보이죠?

면담자: 여기인가요?

구술자: 아니! 이걸 사이로고. 이 속에 드럼이 있어요.

면담자: 사이로 안에 드럼이 있어요?

구술자: 아니요. 컨베어로 해서 거기서 말려 나온 것을 사이로에 집어넣는 거죠.

15) 원료를 미세한 입자로 분쇄한 뒤, 공기와 함께 보일러 내부에 주입하여 유동층 상태에서 연소시키는 방식의 보일러로 연료와 공기가 고르게 혼합되어 높은 연소 효율과 낮은 오염물질 배출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성이 있음

면담자: 아! 여기가 저장소네요?

구술자: 네. 저장소. 임시 저장했다가 포장하러 옮겨요. 이게 포장실일 거예요.

면담자: 여기가 포장실이요?

구술자: 예. 여기서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면담자: 혹시 말씀하신 공정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구술자: 음. [동양화학 공장 전경 사진을 보며] 지금 여기 새로 난 회사가 있는데, 이 뒤에가 소금 창고예요. 여기가 전부 다 소금 창고였어요.

면담자: 지금은 나무가 있네요?

구술자: 지금은 소금이 없어졌으니까요.

면담자: 거기다 소금을 쌓아놓고요?

구술자: 예. 소금이 옆으로 해서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면담자: 여기 뒤로 이렇게?

구술자: 그리고 여기가 솔트 플랜트예요. 소금을 녹이는 곳이죠. 여기가 라임 플랜트고, 여기가 타워 플랜트. 그다음에 여기가 칼사이나 플랜트예요. 여기는 정밀화학 쪽 같은데요?

지원자: 여기가 정밀 화학인 거죠?

구술자: 아니에요. 정밀화학은 더 아래쪽이에요.

면담자: 더 밑에, 이쪽인데?

구술자: 이쪽에 길 밑에.

면담자: 네. 길 오른쪽에 있는 곳이 정밀화학 공장 부지라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이게 소다를 말리는 칼사이나 플랜트예요. 여기는 압축실이라고 해서, 공기를 압축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중조¹⁶⁾. 여기가 타워 플랜트예요.

지원자: 그럼 [사진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렇게가 압축실인가요?

구술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자: 여기가 중조고. 여기는?

구술자: 여기는 발전소예요.

면담자: 이게 발전소예요?

구술자: FBC하고 발전소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석회석을 녹이는 곳인데, 킬른¹⁷⁾이라고 해요.

면담자: 석회석을 녹이는 거예요?

구술자: 라임 플랜트가 여기 있는데 이거 때문에 안 보여요. 킬른하고 타워하고 사이에 있는데.

16) 탄산수소나트륨의 속칭. 중탄산소다의 약칭. 소다회에 물을 가해 1수화염으로 한 것 또는 결정 소다에 이산화탄소를 통해 반응시켜 만드는 화학제품으로 의약품, 가루비누, 세탁용, 이산화탄소 발생제, 베이킹 파우더, 소화제에 사용됨

17) 연속 공정에서 재료를 고온으로 올리는 데 사용되는 파이로프로세싱 장치

면담자: 그건 뭐였는데요?

구술자: 여기에 돌을 올려가지고 밑에서 석탄(무연탄)을 때요.

면담자: 여기가 석회석 태우는 데네요?

구술자: 네. 이걸 킬른이라고 해요. 가루로 된 석회석을 라임 플랜트에서 밀크화시켜서 타워 플랜트로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희석을 시키는 거죠. 여기가 중조니까, 여기까지가 타워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힐터링을 해요. 힐터링이 뭐냐면, 희석된 걸 가스로 빨아들여서 이만한 드럼 벽에 부착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건조가 아니라 수분 제거예요. 그리고 그걸 케이크화해서 커팅시켜가지고 칼사이나 플랜트로 보내요. 칼사이나 플랜트에도 드럼이 있는데, 그 드럼을 '드라야'라고도 해요. 그건 공장 안에 있어서 여기서는 안 보여요. 칼사이나 플랜트에 드럼이 4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길이가 15m에서 30m인가 그런데, 거기에 커팅된 제품을 넣고 스팀 튜브로 말리는 거예요. 다 말리면 '바게트 엘리베이터 컨베아'라고 하는 장치로 해서 여기 사이로(silo) 올리는 거예요.

면담자: 여기가 저장소인 거예요?

구술자: 네. 저장소로, 이런 사이로가 2개가 있어요. 저장한 걸 갖다가 여기서 넣고 컨베아로 해서 포장실로 보내는 거예요.

면담자: 여기가 포장실인 거죠?

구술자: 자동 포장기죠. 포장돼 가지고 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면담자: [지도에서 순서를 표시하면서] 그럼 순서는 이렇게 오는 거네요?

구술자: 이 뒤쪽이 전부 다 소금 창고예요. 소금 창고가 엄청나게 커요. 잘 안 보이지만 여기는 스톤이라고 해요.

면담자: 석회석 쌓아놓은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술자: 네. 그거를 이쪽 뒤로 짝 이어서, 여기서 컨베아(conveyor)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컨베아 벨트 앞에 사람들이 쭉 앉아서 선별해요. 석회석이 있는 것만 골라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걸 킬른으로 올려요. 거기에 열을 가하면 잘 바스러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크레샤라고 해요. 주먹 같은 게 막 들어와서 깨는 거예요.

면담자: 소리가 엄청나게 컸겠네요?

구술자: 네. 크레샤로 깰 때 그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니까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스크린(screen)을 통해서, 바이브레이터(vibrator)라고 흔드는 장치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분말로 만들어서 펌프(pump)로 라임(lime) 쪽으로 보내요. 거기서 밀크(milk)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뒤쪽에 그 밀크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밀크를 만들어서 그걸 펌프로 타워(tower)로 보내요. 이 타워 안에 탑이 이렇게 위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 넣는 거죠.

면담자: 수분을 빼고요?

구술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믹싱(mixing)을 시키면서 급랭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해수를 끌어다가 여기서 반응을 시키면 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이 만들어지는 부분에는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4개 있는데, 길이가 이 정도 되고, 다이아(diameter)는 한 2.5m 정도 돼요. 크죠? 그게 이렇게 돌아가면 가루가 쪽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크레이퍼(scraper)로 그걸 떼어 내요. 떼어낸 걸 컨베어로 해서 다시 칼사이나로 보내는 거예요. 그

면담자: 예. 이 공장 안에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었다는 거죠?

구술자: 네. 거기에 이 플랜트 말고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면담자: 더 있는데, 저희는 한 대여섯 개 정도 공정을 지나면 소다회(소다회)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구술자: 네.

9. 과거 연구소의 위치 설명, 기숙사 및 강당에 대한 기억, 석회석 고르는 공장에 대한 설명 (00:57:13~01:01:29)

면담자: 연구소 위치가 궁금한데 어디에 있었는지요?

구술자: 연구소 자리가 저기(옛 새인천 유원지 옆) 송암미술관?

면담자: 그쪽에 있었어요?

구술자: 거기가 연구소예요.

면담자: [지도에서 한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네요?

구술자: 그렇죠. 송암미술관 요거일 거예요. 요게 연구소예요.

면담자: 아! 여기가 연구소예요? 송암미술관 바로 옆에 있었네요?

구술자: 그렇지요. 홍규선 부사장님이 공장장을 거쳐 송암미술관 관장으로도 계셨지요.

면담자: 네. 연구소가 여기 있었고, 기숙사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가요?

구술자: 이거 같네요.

면담자: 여기요? 극동 방송국 옆에?

구술자: 네. 맞아요. 여기가 기숙사예요. 여기 식당도 있었고.

면담자: 식당은 기숙사 1층이라 했으니까. 공장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네요.

구술자: 여긴 야적장이고, 여기가 사택 같은데요? 이쪽에?

면담자: 사택? 그러니까 극동 방송이요?

구술자: 예.

면담자: 그거는 여기예요. 풀숲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네요.

구술자: 그러게요. 여기가 큰 건물, 훈련 교육장, 강당이 있었던 자리 같아요.

면담자: 강당이요? 근데 그거는 다 부서졌는지 안 보이네요.

구술자: 안 보여요.

면담자: 네. 강당도 있었구나.

구술자: 강당이 크죠. 거기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여기는 뭐였을까요? 이것이랑 이것이요. 여기는 지금 도로 앞쪽이거든요?

구술자: 이건 사이로이고, 이게 컨베이어예요. 아~ 지금은 고속도로가 된 곳인데, 바로 앞이었어요. 여기도 석회석을 고르는 공장이었죠.

면담자: 석회석이요? 돌 고르는 공장?

구술자: 돌이 들어오면 여기로 왔어요.

면담자: 돌이 이렇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구술자: 맞아. 돌 고르는 곳이에요.

면담자: 돌 고르는 공장이었구나.

구술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는 무연탄이네요!

면담자: 무연탄이요?

구술자: 돌 고르는 데는 여기 정도 되는데 여기는 무연탄을 적재했던 곳이에요.

10. 철도 인입선의 위치 설명, 청년 시절 철도를 몰래 타고 놀러 갔던 추억, 새인천 풀장에 대한 기억 (01:01:29~01:07:44)

면담자: 철도 인입선은 어디 방향으로 들어왔나요?

구술자: 이게 도로죠? 옛날에는 철도가 바로 이 밑으로 있었어요. 이 길 바로 아래로 지나갔던 거예요.

면담자: 네. 뒷길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군요.

구술자: 지금 여기는 OCI가 아파트 짓는 데 아니에요? 이건 정밀화학 지역이니까 없어졌고요.

면담자: 네.

구술자: 옛날에는 여기가 미군 부대 유류 창고였어요. 유류, 그러니까 기름 저장소였죠. 그런데 OCI에서 이걸 막아가지고 지금처럼 바뀐 거예요. 이쪽 동네가 원래 미군 기름 탱크가 있던 곳이에요.

면담자: 네. 문학산, 연경산에 기름 탱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네. 기름 탱크가 쪽 있었죠. 여기 철길 밑으로 파이프라인이 들어가서, 기름이 이쪽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다 갔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름이 없을 때는, 여기서 전방으로 기름을 다 보냈던 거예요.

지원자: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그 철길이 이쪽으로 해서 대우전자 쪽으로 지나갔다고 들었거

든요?

구술자: 그렇죠.

지원자: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구술자: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는 미군 부대 POL¹⁸⁾이라고 거기까지만 철도가 있었는데, OCI가 들어오면서 그걸 연장해서 놓은 거고, 그 길로 그 칙칙포포(기차)가 다녔어요. 그걸 우리는 몰래 타고 다녔으니까요.

면담자: 아! 몰래 타고 다니셨구나?

구술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걸 몰래 탔어요. 용현 고개에서는 ‘칙! 칙!’ 하고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가서 딱 잡고 탔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거 타고 소래 가서 낚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소래가 멀었으니까요.

면담자: 용현동 쪽에서 타가지고 소래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구술자: 그게 지금 어디냐면은 용현동 아파트 지었죠?

면담자: 네.

구술자: 그쪽에 칙칙폭폭 기차가 다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길이 조금 올라가니까 천천히 가요. 빨리 못 가고 ‘칙폭 칙폭’하면서 가죠. 거기서 몰래 타면 관리원이 ‘요놈들 여기서 탔지?’ 하면서 쫓아와요. 그러면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 안 열고 가만히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역무원이 ‘요놈들이 또 여기 탔구나!’ 해도,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역무원이 거기만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좀 있다가 그냥 가요. 그러면 싹 보고 나와서 저쪽으로 가서 칙칙폭폭 기차 오면 확 뛰어내리는 거예요.

면담자: 너무 재밌는데요. 어릴 때 재미있게 지내셨네요.

구술자: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면담자: 협궤열차 타고 소래포구 가서 놀았다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처음이라 재미있습니다.

구술자: 소래포구하고 논현동까지 갔어요. 논현동에 왜 갔는가 하면 그때는 바다에 들어가면 낚지가 그렇게 많았어요.

면담자: 세발낚지요?

구술자: 세발낚지가 아니라 일반 낚지.

면담자: 일반 낚지가요?

구술자: 거기서 잡아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 코라고 그래서 20마리씩 이렇게 끼워요.

면담자: 네. 철사에 묶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구술자: 그러면 대학 다니던 친구들과하고 한 서너 명이 가서 그거 한 코 사 가지고 거기서 삶

18) 용현동과 학익동 일대에 있었던 대규모 미군 유류저장소(POL)로 '캠프 유마', '캠프 레노' 같은 유류 저장소를 관리하는 미군 부대가 주둔했음

아요. 옛날에 항고라고 있는데, 거기에 넣어서 삶는 거예요.

면담자: 네! 저도 그거 압니다. 군대에서 밥 먹을 때 쓰는 식기죠?

구술자: 거기다 물을 팔팔 끓이다가 문어를 집어넣어서 그거 먹고 그랬으니까요.

지원자: 제가 듣기로는 동막 근방에서도 낚시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구술자: 지금 우리 회사 바로 앞에서도 낚시 많이 했어요. 낚지도 잡고.

면담자: 일단 바닷물이 있고 갯벌이 있으면 가서 잡는 거죠!

구술자: 그러니까 제가 사원 아파트에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원 아파트에 있을 때는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좁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5평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도 두 명이 있어서 집이 좁으니까 회사에 주로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오면, 그 폰드(Pond) 있잖아요? 바닷물을 끌어다 쓰려고 만든 폰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낚시도 했죠. 나중에는 그게 수영장이 됐어요.

면담자: 네. 새인천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수영장 될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나한테 수영장 티켓 달라고 그러면 공짜로 줬지요.

면담자: 동양화학 직원들은 다 공짜 티켓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구술자: 몇 개씩 주긴 했는데,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몇 개가 아니었죠! 제가 그냥 막 뺏어다가 주곤 했어요. 그때 이용술 씨가 거기 서무과에 근무했었어요.

11. 공장을 가득 채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 설비와 정비 기술력의 증진으로 제조 기술 능력의 발전된 이야기 (01:07:45~01:13:57)

면담자: [공장 사진을 보며] 여기 보면 파이프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군산 공장 홈페이지를 보면 파이프가 엄청 많던데, 화학 공장에 파이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구술자: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콤프레샤라고. 그 콤프레샤에서 AIR를 압축시켜서 그걸 보내면, 이쪽에서도 그렇고 전 공장에서 다 쓰는 거예요.

면담자: 압축된 공기를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구술자: 아까 말씀드린 휠터링처럼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도 있고, 또 압력으로 굽어내는 방식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식들로 사용하는 거죠.

면담자: 압력으로 뭔가 힘을 줘서 해야 하는 작업에 사용한다는 거죠?

구술자: 그런 게 공정상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에어라인 파이프, 스팀 파이프, 해수 라인 파이프, 별별 라인 파이프 전부 다 그런 거지요.

면담자: 그러면 파이프 관리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구술자: 옛날에는 PP19), PE20)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좀 빨리 도입했다는 게 FRP21)라고 그

래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파이프가 터지면 바르는 거죠. 그런 FRP 탱크는 요즘 안 써요. 전부 다 PP 뭐 이런 걸로 하고 있지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녹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강산을 다 취급했거든요.

면담자: 강산? 산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죠?

구술자: 예. 그러니까 황산, 염산 같은 거요. 우리 회사는 산이 없는 게 없었어요. 산에는 순간에 녹아버려요. 30분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일반 파이프 같은 걸로는 안 돼요. 엄청 위험한 거죠. 그런 걸 개선하기 시작한 게, 파이프 내부에 코팅하는 방식이었죠. 코팅해서 쓰긴 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비싸게 수입해 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FRP로 바꿨는데, FRP도 약간 부식 성향이 있어요. 스테인리스도 못 견디니까요. 제일 좋은 스테인리스 합금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걸 다 해본 거죠. 게다가 PE나 PP는 열에는 또 안 되잖아요?

면담자: 네. 안 되죠.

구술자: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되는 부분을 구매해서 하느라 고생했지요. 그거는 기술이 없으면 접합을 못 하잖아요. 쪽 이어나가야 하는 기술을 배워야 하니까요. 그런 걸 가르쳐주고 사진 찍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엄청 힘든 거예요. 강산은 전부 다 파이프로 이송되니까 만약 터졌다면 아주 전쟁 나는 거예요.

면담자: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도 다치고 매우 그랬겠네요?

구술자: 그럼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지요.

면담자: 선생님은 괜찮으셨어요?

구술자: [살짝 웃으시면서] 난 좀 약했어요.

면담자: [웃으며] 네!

구술자: 여기보다 군산 공장은 더해요.

면담자: 파이프가 엄청나더라고요.

구술자: 나중에 공장에 설치된 것이 후러싱²²⁾인데, 후러싱! 씻겨낸다는 소리.

면담자: 플러싱?

구술자: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면담자: 네. 일본어 배우셔서. 일본어로 영어를 배우시면 좀 다르더라고요.

구술자: 일본어는 원래 똑똑똑하지. 근데 영어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거진 다 영어로 했어요. 모든 게 영어 아니면 안 됐어요. 일본어보다도 영어로. 일본 사람들도

19)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약자로, 프로필렌을 중합해 만든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 경량성, 내열성, 내화학성 등 우수한 물성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됨

20)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의 약자로, 가장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소재로, 일상생활에서 비닐봉지, 파이프,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21)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reinforced plastic)의 약자로, 복합재료의 하나로서 말 그대로 섬유로 강화한 플라스틱. 무게에 비해 강도가 높고 부식에 매우 강한 장점이 있음

22) 씻겨낸다는 의미의 단어로 'flushing'을 말함. 산업 현장에서는 배관, 탱크, 장비 내부의 이물질, 녹, 오염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

기술을 미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2, 30년 이렇게 앞서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어요.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에서 10위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면담자: 네. 제조 기술이 정말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그럼! 그래서 제가 배운 거를 가르쳐주려 전 그룹사를 다 다녔고, 중국도 여러 번 다녔어요. 가서 기술 가르쳐주고 운전시켜주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12. 열병합 발전소의 원료 교체에 관한 설명, 이회림 회장님의 말씀, 기술 가르쳐 주기 위해 중국에 출장 가서 겪은 에피소드 (01:13:58~01:26:30)

면담자: 열병합 발전소²³⁾가 벙커 C유(Bunker C Oil)²⁴⁾에서 무연탄(無煙炭, Black Coal/Anthracites)²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 선생님도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구술자: 그때 디자인이나 설계와 같은 작업을 위해 팀을 구성했어요. 우리는 공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역할이고, 그런 새로 신설된 부분은 건설부가 했어요. 기술부라고도 그러지요. 기술부가 따로 있어가지고, 스터디하고 업체를 선정하면 우리는 감독만 했어요. 제가 기능과 기술이 접목돼야 완벽한 부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공무부가 기술부에서 하는 부분을 관여해서 감독했어요. 기능을 모르는 친구들이 기술부에 많이 있었어요. 감독은 최종적으로 공무부에서 하는 거고, 그전에는 기술부에서 설치하고 그러니까 기술부와 공무부는 계속 미팅하는 거죠. 미팅을 해서 ‘이 부분 고쳐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했었죠.

면담자: 그럼 처음으로 보일러가 작동되었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구술자: 그게 원샷에 돌아가 주면 좋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먼저 시운전이라는 걸 해요. 시운전에서 문제점이 생기면은 다시 그걸 보완하고, 또 시운전하고 그렇게 몇 번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 기분이야 끝내주는 날이죠! 그날은 회식하는 날이에요.

면담자: 다 같이 모여서요?

구술자: 아니요. 다 같이는 아니고요. 내가 부장이었을 때는 개인이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때 당시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쓸 수 있었어요. 그 바람에 우리는 급여를 우리가 직접 못 가져갔어요. 돈을 전부 통장으로 해서 꿈쩍을 못 하게 해놨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냐? 바로 우리 왕 회장(이회림)님이 그랬어요. 왕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봉급 타면 쌀을 한 가마니 먼저 사!’라고 하셨으니깐요. 쌀 한 가마니 사고 그다음에 연탄 사고 그리고 저금하라고

23) 한 가지 연료를 태워서 전기와 열, 둘 이상의 에너지를 동시에 얻는 방식

24) 선박이나 발전소 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중질유(heavy fuel oil, HFO)의 한 종류

25)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적고 고열량을 가진 석탄

하셨습니다.

면담자: 그리고 나서 남은 돈 쓰라고요?

구술자: 그리고 나서 쓰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쓰지 말라는 얘기에요! 우리 왕회장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그 양반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셨던 거예요.

면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구술자: 집합시켜 놓고 그러셨죠.

면담자: 아까 그 강당에다가요?

구술자: 집합시켜 놓고. 박병만 씨가 그때 노조위원장이었는데, 왕 회장님이 노조위원장을 자주 불러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노조위원장이었던 박병만 씨는 사측과 소통을 잘했어요.

면담자: 네. 회장님의 근검절약 정신을 엿볼 수 있네요. 혹시 보일러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술자: 벙커C유는 알죠? 그게 원가가 엄청 높았어요.

면담자: 네.

구술자: FBC의 원리는 무연탄가루를 날리는 거예요. 날리면서 불을 피우면, 그게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타는 거죠. [강조하며] 엄청 환경상 안 좋아요. 분진이 나와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콧구멍도 새카맣고 그랬어요. 그걸 잡기 위해서 휠터링이라고 해서, 백휠터 같은 걸로 잡으려고 했는데도 엄청났어요. 나중에 안정화는 됐는데, 그게 또 마모성이 많은 거예요. 보일러 안에서 무연탄가루가 날아다니면서 쇠를 깎아 먹어요. 그래서 자주 보수를 해야 했죠. 그 보수 기간에는 기름보일러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돌리고, 원래 보일러는 가동을 중지하고 보수한 다음에 다시 돌리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원가가 엄청나게 다운된 거예요. 적자가 난 적은 없었는데,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FBC 보일러가 그 역할을 크게 했어요.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설치됐다가, 환경 규제 때문에 제재를 받았잖아요? 온난화 문제 때문에 그런 보일러는 다 없애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는 거의 전부 그 보일러예요. 연길 같은 데 가보면, 공장 밑으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이 완전히 새카맣게 돼서 흘러 들어가요. 그런 데에 기술을 가르쳐주러 가기도 했어요. 장춘이나 연길에 가면 우리나라 전라도 사람들이 특히 연길에 많이 살았어요. 연길 부시장은 한국 사람이고 시장은 중국 사람이었어요. 경제국장도 한국 사람이었는데, 우리 기술을 그쪽에 유치시키려고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일하다가 밥 먹으러 북한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의를 주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서는 절대 김일성 얘기하지 말고, 김정일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요. 그 당시에 경제국장하고 부시장이 같이 이북 식당에 갔는데도, 식당 주위를 뱅뱅 돌면서 총을 메고 있더라고요.

면담자: 식당 안에서요?

구술자: 네. 이북 군인들이요. 그때 텃을 주는데 텃도 안 받아요. 아가씨들이 텃도 안 받고 노래만 하고 가길래 왜 안 받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다 뺏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안 받는 거래요. 그런 별꼴을 다 보고 다녔어요.

면담자: 진짜 그러셨네요. 이북 식당도 가시고.

구술자: 그전에 내가 사진 준 것 중에 이북에서 찍은 사진 전부 봤잖아요? 한 20명씩 이렇게 총 메고 감시해요. 어디로 탈출 못 하게. 제 기억에 연길엔 이북에서 도망 온 애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도망친 애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잡으면 그냥 코를 꿰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놈들이에요.

면담자: 그렇죠. 상상하기가 쉽지 않네요.

구술자: 징그러운 놈들이에요.

13. 업무 수행 중 위기 상황 극복 에피소드, 안전 교육과 사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정(情) 있게 인사 관리를 했던 기억 (01:26:31~01:32:58)

면담자: 업무 수행 중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찔했던 위기 상황이 있었나요?

구술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부분은 많이 발생했는데, 추락의 위험도 많았고요. 특히나 우리 회사는 강산 취급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산은 조금만 잘못하면 전부 화상을 입게 되는 거니까요. 어마어마한 사고도 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됐다가는 큰 일 나는 거지요.

면담자: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결이 됐었어요?

구술자: 그때도 회사에서 보상은 해 주는 데 그게 얼마나 됐겠어요? 막말로 개죽음이라고 그러죠. 개죽음. 그때는 어렵게 살 때니까 그랬는데, 그 사전 관리라는 게 있죠?

면담자: 네. 안전 교육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술자: 안전 교육도 그렇지만 모든 업무의 사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계든지 간에 설치할 때 ‘처음에는 이걸 먼저 해야 한다!’ 생각하고 철저히 그거부터 했으니까요.

면담자: 아! 그 순서를 지켜서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구술자: 예. 그렇게 하고 안전과를 입회시키고, 산에 대한 전문가도 입회시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그 관련 면허를 땀거든요. 우리 집에 보일러 검사 나올 때, ‘보일러는 제가 기술자인데 무슨 보일러 검사를 해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도 ‘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요.

면담자: 아! 그럼 사전 관리 지침을 잘 만들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술자: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식이 없는 사람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공부를 안 했잖아요? 거진 다 부주의지. 그러니까 그 상식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그 물성이 뭔지도 몰라.

만약 사고가 나면 그 물성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왜 저런 사고가 터지게 하나? 그건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즘 건설회사 다니는 사위랑 그런 대화를 해요. '대학을 나올 때 배웠던 것처럼 이거와 이거가 접목이 잘 못 되면 그런 사고가 저질러지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잘 챙기고, 사전 점검은 꼭 하고, 잘 교육한 다음에 인원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이런 안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교육하면 잘 듣는 애들이 있고 안 듣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은 척만 해놓고 가서 사고 쳐요. 그런 애들이 사고 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면담자: 안타깝죠. 좀 잘 듣고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요.

구술자: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하잖아요? 어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나면 그걸 이행을 하나 안 하나 확인을 해야 해요. 잘 보면서 '너는 거기서 일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면 아주 친절하게 대우를 해 가지고 탄 데로 보내야 해요. '여기가 좋은 데니까 너는 적성이 여기가 맞겠다!'라고 설득시켜 가지고요. 그냥 보내면 쫓겨갔다 하고 그러면 또 그게 빨라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잘해서 보내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면담자: 관리하시는 감독직의 숙명인 거죠?

구술자: 그럼요. 그걸 못 하면은 관리자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사람 관리, 이거 하나는 잘 되어 있어요. 인사 고과 제도가 있는데 그런 관리를 제일 우선으로 보는 거예요.

면담자: 사람 관리를?

구술자: 예. 사람 관리를. 근데 1급 부장들은 전부 다 관리자지만은 경영에 들어가 버리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 차장 그 사람들이 그걸 해야 하는데 그거를 또 못하는 그 과장 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야 해요.

면담자: 잘 얘기해서?

구술자: 그걸 잘해야 하죠. 그걸 고깝게 생각하고 '아! 나를 쫓아 보내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情)이 없는 사람이에요.

면담자: 네.

구술자: 정(情)이 있시(있게) 보내야 해요. 정(情)적으로 사람을 새기고(만나고) 정(情)적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보내면 꼭 사고를 쳐요.

면담자: 무척 자상하신 관리자셨을 것 같아요. 잘 다독이시고요.

구술자: 아니! 전 또 혼낼 때는 되게 혼내요.

면담자: 그러세요?

구술자: 맛살하게(뚝 부러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면담자: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요?

구술자: 맛살하게! 그럴 경우엔 '당신 이러면 오늘 집에 못 돌아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교육해주고, 확인해 보고 그 주위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설명하고요.

14. 은퇴 후에도 15년간 전국에 있는 동양화학 계열사의 기계 설비를 관리·감독했던 이야기, 당시 부회장님과 함께했던 회식 에피소드 (01:32:59~01:48:39)

면담자: 동양화학은 초기에는 전통적인 무기화학 제품을 생산해 냈고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정밀화학 공장도 신설하면서 확장했는데, 선생님은 정밀화학 쪽에서도 근무하셨나요?

구술자: 공무부서니까 정밀화학도 했죠. 유·무기 화학 전부 다 했지요. 인천에는 우리 소다회 공장이 제일 먼저 세웠고, 그다음에 한불화학이라고 화이트 카본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어요. 화이트 카본이 뭐냐 하면은 타이어 같은 흰색 고무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어요. 블란서(프랑스)하고 합작 회사라서 한불화학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카리²⁶⁾를 생산하는 카리화학²⁷⁾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유니드가 되죠. 전부 다 화학 공장이지요. 카리도 분말, 한불 화학도 분말이고, 대전 농약 같은 데는 농약만 전문으로 생산한 거지요. 전에는 농약들은 다 수입했어요. 한 농이었지만 우리나라는 못 만들었잖아요? 익산 공장에서는 수소도 생산하고, 포항 쪽에는 블랙 카본이라고 그래가지고 블랙 고무를 생산했죠. 그거는 포스코하고 광양 공장에서 나온 부산물 가지고 우리 포항 공장에서 그걸 정비해서 카본을 만드는 거예요. 카본은 항공기 타이어(검은 고무) 만들 때도 쓰는 건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것을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블랙 카본을 생산하면서 항공기 타이어에 들어가는 제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지금은 항공기도 다 우리나라 거로 하니까요. 아마 미국도 우리나라 거 갖다 쓸걸요? 우리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어서 그런 것만 배웠나 봐요. 조선업 같은 데는 미국엔 전부 없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안 해주면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선소 가봤잖아요?

면담자: 어디요? 포항이요?

구술자: 아니! 전라도지. 대우조선소(현 한화 오션)하고 한화 오션(경남 거제), SK 오션플랜트(경남 고성), 현대조선소는 울산이고.

면담자: 저는 광양밖에 안 가 봐서요. 광양이 전라도인가요?

구술자: 그렇지요. 거기 잘해봤는데, 가 봤어요?

면담자: 저는 한 20년 전에 가봤습니다.

26) '칼륨'의 북한어

27) 1980년 칼륨제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수산화칼륨(KOH), 탄산칼륨(K₂CO₃) 등의 칼륨계 제품과 염소, 염산 등 염소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였음. 1995년에 '유니드'로 사명을 변경함

구술자: 미국에서 배 수리하려고 지금 거기 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면담자: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따라올 수가 없죠.

구술자: 일본 조선소보다도 우리가 앞섰잖아요. 그리고 시약 나오는 익산 공장도 있어요.

면담자: 거기가 과산화수소 나오는 공장 아닌가요?

구술자: 과산화수소, 시약 이런 거 다 익산 공장에서 나오죠. 군산 공장은 더 어마어마하고요. 태양광에서부터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군산은 바다를 메워서 만든 건데, 제가 4년 반을 거기서 갈대밭 치우고 말뚝 박고 공장 지어서 가동하게 시키고 왔어요.

면담자: 그렇게 업종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기계를 다루는 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럼요. 정밀화학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없이 다 나오고, '엘랑코'라고 거기에는 또 미국하고 한국하고 합작 그런 회사 일도 했고, 그다음에 기흥 공장에서 생산된 크리스탈 알죠?

면담자: 크리스탈이요? 기흥에도 공장이 있었어요?

구술자: 기흥에 크리스탈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됐어요. 이태리(이탈리아) 가면 크리스탈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그 기계를 다 사 온 거예요. 우리나라 병유리 공장 기계는 거의 다 이태리산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태리에 출장 가서도 많이 봤는데, 삼광유리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제가 인수 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흥에 크리스탈 공장 만드는 데도 다 참여했죠. 그리고 인천공장, 천안 공장에서는 색깔 유리병을 만들었고, 구미에서는 맥주 캔 만드는 공장도 했어요. 맥주 캔 생산하는 걸 보면 눈으로는 안 보여요. 날아다녀요. 구미에 있는 기계는 좀 오래됐고, 천안 공장은 아주 최신 기계인데,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최신 기계다 보니까 얼마나 정밀하겠어요?

면담자: 아! 저희는 그냥 쉽게 따서 먹기만 하지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생산이 되는 거였군요.

구술자: 종이도 두께가 있잖아요? 캔도 두께가 있는데 그 알루미늄(알루미늄)이 가격이 비싸요. 옛날에는 두꺼웠는데 그것을 영점 몇 밀리, 영점 몇 밀리 이렇게 점점 얇게 만들어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도 참여해 보고 그래서 그 공정도 제가 다 알아요.

면담자: 와~ 진짜 안 가신 데가 없으시네요.

구술자: 전국적으로 소주 공장들도 설비가 잘못돼서 자꾸 트러블이 나면은 우리한테 항의가 와요. 유리 공장 제조하는 공장한테서. 근데 그게 정밀 검사기가 있어가지고 딱 하면 바로 알아요. 그 용량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도 색깔이 그린 색인데 그린 색이 조금 틀리면은 변질이 돼요. 소주도 음료수도 이런 게 변질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색깔로 규격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검사기가 있었는데, 검사기가 부딪치면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탁 쳐내버려요. 예를 들면 100개가 나와야 하는데 100개가 아니라 30개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자꾸 깎아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농약, 술 공장, 대구 술 공장, 군산 공장, 백세주 공장까지 가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고쳐라’ 그렇게 했어요. 백세주 공장에 가면 박스로 한 두 박스씩 줬어요. 캔 공장도 가면 박스로 한 두세 개씩 차에다 실어줬어요.

면담자: [같이 웃으며] 와우! 다닐 만하셨겠는데요?

구술자: 그럼요. 또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니까 가서 또 그렇게 해주는 거지 뭐. 그래야 또 우리 회사도 좋고요. 당시 부회장이 3명이었어요. 관리 부회장이 있고 공장(기술자) 부회장이 있고, 생산 부회장이 있고 해서 3명인데, 우리 생산, 관리를 맡은 부회장님이 서울 상대를 나왔는데, 그분이 우리 집을 2, 3회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술 드시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면담자: 그 집이라는 게 사원 아파트였을까요?

구술자: 아니 지금 여기요.

면담자: 지금 살고 계신 신동아 아파트요?

구술자: 네. 그때 신동아로 하도 찾아들 와 가지고.

면담자: 사모님께서 이사 가고 싶으셨겠어요.

구술자: 거기서 이사 갔을 때 우리가 45평을 분양받았는데, 그때 45평이면 아주 평평할 때예요. [엄지손을 치켜들며] 처음에 했을 때는 거기 아주 이거였었잖아요. 그때 인천에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들이하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고 부회장님이 참여하셨어요. 부회장님이 집이 서울 강남인데 갔다가 ‘야! 거기 가자!’ 하고서 오신다고. 오셔가지고 또 기분 좋으시면은 ‘야! 타! 서울 가서 또 마시자!’ 그러고 또 서울로 데리고 가. 그러고서 운전기사보고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오라고 하셨어요.

면담자: 아이고.

구술자: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면담자: 아니 재미있으셨을 것 같은데, 좋으셨던 거겠죠.

구술자: 괜히 뭐 내 자랑만 하는 것 같아요.

면담자: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예전에 저도 신동아 아파트 45평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대걸 같이 정말 넓더라고요.

구술자: 우리가 45평인데, 처음에 입주했을 때는 어떻게나 사람들이 오는지 아주 많이 혼났어요.

면담자: 넓어서 갔나 봅니다.

구술자: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고, 슈퍼바이저도 오고, 이태리 기술자들도 오면 우리 집에 가고 그랬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좋대요.

면담자: 여기서 사모님에게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거를 다 받아주신 사모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구술자: 그리고 회사가 삼광유리를 인수해서 관리하고, 천안 공장에 가서도 3년 반을 또 유리 공장 캔 공장을 다 합해서 관리했어요.

면담자: 다 은퇴 전 이야기이신 거죠?

구술자: 거기서 정년 퇴임을 했죠. 거기서 공장장 발령이 나가지고 조금 하다가 ‘아! 그만두겠다!’라고 그랬더니 부회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빨리 그만둬야지 제가 자꾸 인정이 끌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부회장이 찾는다고 그러면 그냥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축하 파티한다고 케이크랑 잘 차려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나만 싹 사라져 버리니까 부회장이 화가 났어요! 차장급 과장급 이상이 전부 모이면 몇십 명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라졌으니 부회장이 화가 많이 나셨죠. 하지만 나중에는 아쉬우니까 ‘와서 이거 고쳐라. 이거 와서 봐 줘라! 저거 봐줘라!’ 그래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주면 돈을 주니까 회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면담자: 아! 그러셨구나.

구술자: 그래서 정년 퇴임하고도 15년간을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면담자: 그러니까요. 대단하세요.

구술자: 15년간 그냥 오라고 하면 포항도 가고 군산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 다녔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요.

면담자: 요즘이요?

구술자: 그러니까 농사지으러 다니는 거지요.

면담자: 네.

구술자: 그거라도 해야지요.

면담자: 어디서 농사지으세요?

구술자: 서창동이요! 사실 그 땅을 국토부로 넘겼는데, 국토부에서 1년간은 그냥 하래요. 자기 네들이 뺏어갔으니까 일정 기간은 사용하라고요. 근데 요즘 어떻게 더운지 가서 조금만 하면 힘드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15. 송암미술관 그리고 군산 공장 설립 당시 이회림 회장님과의 에피소드 (01:48:40~01:56:26)

면담자: 이회림 회장님이 인천시에 기부한 송암미술관 관련해서 같이 수행했던 업무가 있으세요?

구술자: 이회림 회장님께서 송암미술관 시설 관련해서 지시하시면 가서 수행했죠. 아까 그 흥규선 부사장이 거기 관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 있는 미술품을 감정하려고 KBS에서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면담자: 아! 진품 명품이요?

구술자: 그때 교수들도 왔었어요. 근데 회장님한테 욕먹고 갔어요.

면담자: 왜요?

구술자: 가짜라고 그랬다고. 당신들이 뭘 안다고 가짜라고 그러느냐고!

면담자: 회장님 속상하셨겠네요. 신경써서 모으셨을 텐데요.

구술자: 거기 있는 작품 중 하나를 회장님은 진품이라고 믿었는데, 그 교수들이 가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난리를 쳐서 도망가 버린 거죠. 나중에 거기 있는 작품들을 인천시에 기증하기도 하고 서울 종로에 있는 회장님 개인 미술관으로 선별해서 보내기도 했어요. 거기에 우리 회사 전무급이 하나 관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할 때 참여했었죠.

면담자: 그러셨구나. 이회림 회장님과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구술자: 그분이 개성분이거든요. 개성이 전라도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면담자: 비슷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구술자: 개성이 원래 장사를 잘하는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전라도 사람들도 장사를 잘하는 거 같다고 회장님이 군산 공장을 선택한 거예요. 군산 공장을 거기다 갖다 크게 지었는데, 거기에 청구 목재라고 있었어요. 그 목재 공장도 유니드에서 해가지고 합판 공장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개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도 데모하니까 공장을 못 짓고 중단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면담자: 그 지역 사람들이 공장을 못 짓게 반대했던 거예요?

구술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회림 회장님이 한 번 내려와서 전 직원을 집합시켰어요. 군산 공장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는 가동하게 시키려고 내려갔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당시엔 공장 주임한테 소개해주는 대가로 1천만 원, 2천만 원씩 주면서 회사에 들어오려고 난리를 쳤는데. 그런 일은 회사에서는 모르지요.

면담자: 그렇죠. 모르죠.

구술자: 근데 그런 말도 결국에는 회장님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네들 내가 여기 와서 공장 지은 이유가 뭘지 아냐? 당신네들 위해서 여기 와서 공장을 이렇게 짓고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주 기억이 남아요. 회장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시면서 그다음부터 군산에 잘 안 오셨어요.

면담자: 그렇게 얘기하고 해결이 잘 된 거예요?

구술자: 그랬지요. 그런데 나중에도 이수영 회장이 군산 공장에 오더라도 회사에는 안 들어오고 탄 데서 만나서 얘기하고 가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때 고생이 말도 못 했어요.

면담자: 군산 공장이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겠네요?

구술자: 그때 저한테 아파트를 하나 줬는데, 애들(가족)이 안 내려오니까 아파트는 비워놓고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숙사는 1, 2층은 누구, 3층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회장실

이 제일 위에 층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저거 했던지 잠을 못 자요. 그때는 워키토키라고 그러나?

면담자: 무전기요?

구술자: 무전기 같은 거요. 워키토키라고 해서 그걸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생산부 과장, 저, 그리고 몇 명이 그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로 바로 알리는 거예요. 그때는 기숙사 들어가서 자려면 파이프 같은 걸 놓고 잤어요. 문을 잠가놔도 막 쳐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아유, 징그러워요.

면담자: 힘든 과정에서 세워진 군산 공장이네요.

구술자: 제가 전주 이씨라고 그랬잖아? 전주 이씨는 그래도 전라도 이씨 아니에요?

면담자: [다 같이 웃으며] 그러네요. 전주는 전북.

구술자: 그래서 전주 이씨라면 좀 봐줬어요.

면담자: 그러셨구나.

구술자: 그리고 제가 여기 인천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두 명을 데리고 내려갔거든요. 태권도가 3단, 4단이었던 그 친구들이 절 따라다녔어요.

면담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네요.

구술자: 말도 못 했어요.

면담자: 그 어려운 가셔서 잘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군산 공장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구술자: 워낙 크지요.

면담자: 네.

구술자: 그걸 다 지은 사람이에요.

면담자: 대단하셔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인터뷰 시간이 길어져서 선생님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구술자: 아니 힘들건 없어요. 여기 이거(직접 적어 온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참고하셔요.

16. 구내식당에 관한 추억, 운영비로 회식했던 에피소드, 동양화학 직원들과의 여러 종류의 친목회 운영 (01:56:27~02:04:01)

면담자: 옛날에 근무하실 당시에는 동양화학 인근에 식당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밑에 있는 회사 식당에서 주로 밥을 먹었다고 들었는데 맛있었나요?

구술자: 네. 그때 밑에 직원들이 맛있는 걸 조금씩 더 가져왔어요.

면담자: [다 같이 웃으며] 직원들이 잘 챙기셨네요.

구술자: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오고, 또 집에서도 싸 오고 그래서 같이 먹고 그랬죠. 저녁

때는 집에 와서 먹으니까. 물론 집에 와서 먹는 시간은 별로 없고, 대부분 나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면담자: 회식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구술자: 그 운영비로 제가 직원들 사줘야 하니까요. ‘오늘은 이 부서 직원들 나와라!’, ‘오늘은 저 부서 직원들 나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인 신동아 일대 동네 식당들은 제가 엄청나게 팔아줬어요. 그냥 뭐 가기만 하면 매상 많이 올려줬지요. 그렇게 해서 잘 된 식당이 많았어요.

면담자: 와~ 구술자님 따라다녀야겠는걸요?

구술자: [웃으며] 아니! 근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때는 회식을 꼭 해줘야 했어요. 회식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별 얘기 다 하면서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걸 다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으면 그런 건 못 하죠. 회식비가 나오면 그걸 탄 데 가서 우리끼리 먹고 영수증만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다 소문나요. 그냥 숨기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웃이죠.

면담자: 무척 정직하게 밑에 직원들을 잘 다독이면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구술자: 그래서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카톡을 많이 해요.

면담자: 네. 그렇게 퇴사하신 분들하고도 계속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랑 모임 갖고 있고, 그 모임을 지금까지 지속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술자: [구술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를 가리키면서] 그 사진 중에 우리 공무 동호회라고 한 거 있잖아요? 정년 퇴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 공무원의 기술자들 모임이에요.

면담자: 아! 네.

구술자: 전부 공무원장 출신, 상무, 공장장 출신들 그렇게 해가지고 모임을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홍규선 부회장 같은 분들하고는 동인회라고 그래서 인천 지역 임원 출신들끼리 만든 거고요.

면담자: 모임이 2개네요?

구술자: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죠.

면담자: 동양화학 관련된 모임이 두 개 말고도 더 있으신 거예요?

구술자: 더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모임이지요.

면담자: 아! 네.

구술자: 생산부 직원들하고 만나는 모임이 있고, 나이가 동갑인 사람들끼리 하는 동갑내기 모임도 있어요. 정년 퇴임하고 그 모임에서 부부 동반으로 해외를 엄청나게 놀러 다녔어요.

면담자: 와! 선생님 인생 안에서 동양화학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은퇴하고 나서도 회사 모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 동양

화학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술자: 모임에 나가서 삶의 공유도 많이 하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현실을 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요. 특히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동인회는 건강을 위해서 만나는데, 옛날에는 좀 멀리도 가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서 요즘엔 가까운 데에서 만나요. 거기서 제가 제일 막내예요! 이용술 씨가 저보다 한 살의 위예요. 그러니까 90대랑 70, 80세가 다 됐으니까 같이 어디 가기가 겁나요.

면담자: 아! 그러세요?

구술자: 제 차가 카니발이니까 제가 주로 운전하고 8명을 태우고 가는데, 아유! 언젠가부터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또 걸어가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요즘은 추진을 안 해요. 그냥 인천대공원만 도는 거죠. 전철 타고 대공원 내려가서 한 바퀴 돌고 송내역 근처에 가서 밥 먹고 그래요. 그 식당이 지금 한 6년째 다니는 식당인데, 거기는 삼겹살, 김치찌개, 김치찌, 갈비도 김치로 해서 하는 데 별걸 다 해요. 근데 싸게 받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또 자리를 다 해놔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하고 다시 전철 타고 오는 거예요. 송내역은 급행 전철이 있으니까 좋아요. 송내에서 타면 바로 부평 한번 들리고 주안에 오잖아요? 동인천도 가고 그러는데, 아주 시원하고 좋고 그래요.

면담자: 그분들이 오랫동안 계속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구술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옛 추억 모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옛 추억 모임! 그래가지고 어저께 짬어를 먹자고 해서 장어를 먹었습니다.

면담자: [웃으며] 장어가 아니고 짬어예요?

구술자: [살짝 웃으며] 네. 장어인데, 요즘은 장어도 국내산이 아니라 거의 다 수입(호주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호주산도 맛있게 잘해주더라고요. 저 이거(직접 적어 온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가져가세요. 나보고 글씨 잘못 썼다고 하지 말고.

면담자: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술자: 한국말 잘 못 쓴다고 그러지 말아요!

17. 사모님과 만나게 된 사연 그리고 인터뷰 마무리 (01:56:27~02:08:45)

면담자: 사모님 얘기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구술자: 옛날에 우리 페스티벌이라고 그러나요?

면담자: 축제? 대학 축제요?

구술자: 네. 대학 축제 거기서 만났어요.

면담자: 한양대학교 축제에서 만나신 거예요?

구술자: 네. 우리 집사람이 동덕여대를 다녔어요. 원래 한양대학교가 동덕여대를 선택을 않는 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한번 미팅녀로 선정 받았지요. 혹시 연희동

에 사는 대통령 누구죠?

면담자: 김대중?

구술자: 아니지!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면담자: 대통령이라고 하셨잖아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생각 못 한다고? 아니! 전두환이 아니야?

면담자: 아! 전두환!

구술자: 우리 집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집 바로 밑에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간호사예요.

면담자: 그럼 미팅하고 나서 계속 만나신 거예요?

구술자: 그런데 잘 안 만났어요. 그때 그러고는 다시 만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쪽 페스티벌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저는 안 나갔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만났죠. 그때 병원에 근무하는 걸 알게 돼서, 제가 병원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면담자: 마음이 있었네요.

구술자: [하하 웃으며] 그런데 그때 내 나이가 31살이니까, 그때치고 결혼이 엄청나게 늦은 거예요. 그때는 스물여섯 늦으면 일곱, 여덟 그렇게 했는데 나는 뭐 대학 때문에 그랬지요. 졸업하고 가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회사도 학교에 다니다 나갔기 때문에 졸업을 못 했잖아요? 제가 그때 다니다 말고 취직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참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영어를 잘해요. 영어로 다 얘기를 하자는데, 내 참기가 막혀. '지금 국산 말도 지금 안 나오는데 무슨 놈의 영어냐?'고 내가 그랬어요.

면담자: [다 같이 웃으며] 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화 2세대로서 후배 직장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구술자: 여기(적어오신 종이).

면담자: 아! 네. 여기 적혀 있습니까?

구술자: 네. 있어요.

면담자: 네.

구술자: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어오신 종이를 보고 읽으며] 사회는 옛것을 찾아서 기록하고, 이를 잘 모르는 후세가 그 희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 속에서 용기 있게 자기 계발을 하고, 기억하면서 지역의 앞날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면담자: 마지막으로 산업화 2세대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구술자: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주 이웃과 돈독한 우대로 아름다운 인생관과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진취적 방식으로 임하라.

면담자: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술자: 고맙습니다.

*녹취문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눠 시간 기입

글씨체 : 함초롬바탕

글씨크기 : 세부주제-12pt(볼드체 적용) / 내용-10pt

줄간격 : 200%